

# 무더위쉼터·그늘막 만들고 축사 스프링클러 긴급 지원

## 광주시·전남도 대응 총력

기록적인 폭염에 지자체와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시내 곳곳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 조금이라도 도심 온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족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도는 예비비 등 30억원을 긴급 투입, 스프링클러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지원에 나섰다. 폭염이 지속하면서 수업을 단축하고 학교 시간을 앞당기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19일 광주시는 "폭염이 지속돼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자치구별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노인시설 1167곳, 복지회관 5곳, 마을회관 2곳, 보건소 5곳, 주민센터 20곳 등 광주 지역 1285곳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는 금융기관(광주은행 영업점) 74개소, 지하철 쉼터 1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들 무더위 쉼터 중 1171곳(노인시설 1,161, 마을회관 2, 종교시설 2)에는 모두 2억6000만원의 냉방비(재해구호기금)가 지원되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재난도우미 2605명도 파견됐다.

## 소방차 동원 도로에 물 뿌려

### 가족폐사 막기 30억 투입

### 단축수업 시행 학교도 늘어

잠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인 그늘막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110개소를 운영했던 광주시는 올해 200개소로 그늘막을 늘렸고,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던 천막형에서 우산형으로 모두 교체했다. 또 광주시는 건설·산업사업장의 탄력적 휴식 시간(오후 2시~5시) 운영을 유도하고, 6000만원을 들여 소방차 12대를 동원해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은 하루 2차례 물을 뿌리고 있다.

전남도는 가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포함해 3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군, 의료기관,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폭염 대응팀을 통해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이날 시·군 축산 관련 과장 영상회의를 열어 스프링클러 등 장비 설치기 시급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지원 장비는 스프링클러, 차광막, 환풍기, 차광페인트 등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폭염 피해가 집

중되는 닭, 오리, 돼지 농가 위주로 지원하되, 고령·소규모 등 축사 관리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농가별 한도는 600만원이며 70%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장비 지원이나 물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소방차를 활용하고 시·군과 지역 축협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지붕에 물 뿌리기를 돕도록 했다.

이날 현재 전남에서는 닭 53농가 14만 3000마리, 오리 6농가 1만 마리, 돼지 77농가 1000마리 등 모두 136농가에서 15만 4000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선 학교에서도 폭염에 따라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6일 중학교 4곳과 고교 2곳이 수업을 5분씩 단축, 학교 시간을 1시간 가량 앞당겼다. 17일부터 이날까지는 단축 수업하는 학교가 하루 평균 중학교 9~10곳, 고교 2~3곳으로 다소 늘었다.

전남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중학교 7곳, 고교 1곳에서 단축수업을 진행했으며 날씨와 수업시수를 고려해 학교별로 단축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그늘에서 쉬어 가세요"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횡단보도 그늘 쉼터에서 시민들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 80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장이 지난 19일 개장했다.

## 문화전당 80m 워터슬라이드 갖춘 물놀이장 개장

### 내달 19일까지 월요일 제외 매일 운영...청소년·아동 무료

여름 무더위를 시원한 물놀이로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광장에 어린이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해 다음달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물놀이장은 80m길이의 워터 슬라이드

와 5m 크기의 미니풀장으로 구성됐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무료다.

이와함께 어린이문화원에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유아놀이터를 비롯해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며 집

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쉼터도 조성됐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 "ACC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개장했다"며 "ACC가 어려운 곳이 아닌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가마솥 더위 최소 29일까지 계속된다

### 광주·전남 주말 37도 예상 한반도 상공 두 고기압 원인

열흘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주말과 휴일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섭씨 37도까지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 1994년 7월에 기록한 한 달 최고 폭염일수(33도 기준) 24일 기록을 경신하거나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비 예보 없이 광주·전남은 35도 안팎의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 10일부터 33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11시를 기해 장성·영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19일 오후 5시까지 광주·나주·곡성·구례·화순·광양·순천·여수 등 14곳에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며, 흑산도와 홍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남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린 상태다. 기상청은 또, 오는

21일 광주 37도, 함평·구례 36도, 나주·장성·담양·화순 등 8개 지역 35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찜통더위는 장마전선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서쪽으로 밀려나며 찾아왔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의 원인에 대해, 최근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 대비 매우 강하게 가열되며 한반도 대기 상층(고도 5~12km)에는 티벳 고기압이 그리고 대기 중하층(고도 5km 이하)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기압이 대기를 덮고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압 배치에 당분간 계속 유지돼 낮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최근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기세인데다 폭염의 원인과 무더운 고기압이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이러한 더위는 여름 내내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안정적 인 고기압도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기압이 변화돼 더위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고기압의 기세가 너무 강해 태풍도 한반도에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게 기상청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물러나며 폭염 발생에 한몫했다. 실제로 광주·전남의 장마는 지난달 26일에 시작해 지난 9일 종료됐다. 장마기간만 살펴보면 평년(32일)의 절반도 못미치는 14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악의 무더위로 손꼽히는 지난 1994년의 장마기간(15일)과 흡사하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1994년은 7월 한달간 폭염일수 24일, 열대야는 22일에 달했다. 올해 광주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폭염일수 10일, 열대야는 7일을 기록하고 있다.

김갑한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유동적이지만 오는 8월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